



VIVIEN [라이프] 골린이 잡아라 패션업계 골프웨어 '대격돌' L2



Life

Advertisement for Metro's 20th anniversary, featuring '메트로 창간 20년' and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환경+경제, 문화+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은 세계정책

텍사스 폐기물 활용해 제품 생산 충청 서커스 공연으로 일자리 창출 델리 E-헬스카드 통합 시스템 구축

세계 주요 도시들이 '순환경제 실현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첨단 기술 융합 서커스 쇼',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E-헬스 카드' 등으로 환경·경제, 문화·일자리, 기술·건강 분야의 부흥을 동시에 이끄는 일거양득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11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리버스 피치 컴페디션'을 2015년부터 진행해왔다. 이 대회는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10일 배달원이 중국 베이징의 한 커뮤니티 입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AP통신·뉴스시스

시는 경진대회를 통해 폐기물로 버려지던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총량을 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약 90초짜리 비디오판 2~3개의 사진과 함께 부산물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시에 부산물 제공을 신청한

다. 시는 신청서를 검토해 부산물을 선정, 제시된 재료를 활용하는 새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모한 뒤 최종적으로 4개팀을 선발해 지원한다.

이경선 통신원은 "장기적으로 도시의 폐기물 저감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 시와 기업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충칭시는 제조 기업을 첨단 기술을 접목한 서커스 쇼를 통해 문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커스 전문 공연장인 '충칭국제마희성'의 문을 열었다.

시는 전체 면적이 4만1513㎡에 달하는 서커스 공연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충칭국제마희성잡기단'을 창단하고, '마환지도·극한쾌락쇼' 공연을 정기적으로 선보이는 중이다. 마환지도·극한쾌락쇼는 제조·공공 기업을 첨단 조명과 레이저, 홀로그램 등을 동원한 블록버스터 쇼다.

모종혁 통신원은 "중국은 고대부터 벌였던 각종 기예와 곡예를 전승하고, 아크로바틱 제조 기예와 공공 곡예를 특화시킨 서커스를 공연하면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토대로 한 'E-헬스 카드'를 출시해 올 상반기 주민들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주민이 E-헬스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실물 카드와 모바일용 QR코드가 발송된다. E-헬스 카드를 발급받은 시민은 QR코드 기반 앱에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의료진은 개인 동의를 거쳐 진료시 구축된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델리 NCT 정부는 의료기관 예약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개인별 검진, 진료, 수술, 투약, 접종 등 의료기록과 함께 병원 예약일정 등의 정보를 축적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정보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박원빈 통신원은 "공공 데이터 측면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 임상 통계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의료보건 정책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민, 지난해 대중교통 34억건 이용했다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건수 930만건 평균 1.24회 환승, 약 11.3km 이동

지난해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자는 약 34억명, 일평균 이용 건수는 9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한 번 이용할 때 평균 1.24회 환승하고, 약 11.3km를 33.1분 동안 이동했다. 서울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수집된 약 3000억건의 대중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2021년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11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시내에서는 하루평균 686만건의 목적통행이 발생했다. 목적통행은 출·퇴근, 업무, 친교 따



시당역에서 이동하는 시민들. /손진영 기자 son@

위의 목적을 지닌 통행을 의미한다.

일평균 교통수단 이용 건수는 총 930만건에 달했고,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버스가 약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358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395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 운행 횟수는 4만564회로, 총 운행 거리는 153만4688km에 이른다. 하루평균 버스 이용 건수는 약 390만건으로 집계됐다.

지하철의 경우 10개 노선, 360.5km 구간, 335개의 역사를 약 470편의 열차가 하루에 4637회 운행했다.

일평균 지하철 이용 건수는 461만건이며,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은 2호선(107만명)이었다. 이용 건수 1위를 기록한 지하철역은 2호선 강남역(6만6693건)이었다. 같은 노선의 잠실역(5만6137건), 신림역(5만2716건), 구로디지털단지역(4만8010건), 홍대입구역(4만5253건)이 그다음이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병원 혼자가기 힘든 1인가구와 동행

'병원동행서비스' 2000여명 이용

서울시는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가 190일 만에 2000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아플 때 혼자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함께하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로, 작년 11월 첫선을 보였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저소득 시민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

터 이달 9일까지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 수는 2021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이용률은 80대 이상이 30%로 가장 많았다. 70대 29%, 60대 23.5%, 40~50대 13.7%, 30대 이하 3.8% 순이었다. 병원 이용 유형은 일반진료, 건강검진, 재활치료, 투석 등으로 다양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특히 올해 1월 8건에 불과했던 중위소득 85% 이하 계층 이용자 수는 3개월 만에 17배 이상으로(4월 143건) 증가했다. 시는 올 상반기 중 동행매니저 10명을 추가로 배치해 인력을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7건 선정

최우수 과제 '주차장 진입경사로 확대'

고양시는 지난 10일 '2022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7건의 규제개혁 우수과제에 대한 시상 및 보고회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을 주제로 규제

개혁 아이디어 총 31건을 접수받은 후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7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로도 도시재생과 이연기 과장이 건의한 '차량은 커지고 진입경사로 32년 간 그대로, 차량운전 안전 개선'이 선정됐다. 이 과정은 차량 전폭 확대 및 대형차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채, 32년 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

는 건물 부설 주차장 진입경사로의 너비 확대를 건의했다.

우수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 절차 추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접수방법을 온라인 원칙으로 개선 ▲전국 지자체 행사·축제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합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선정됐다.

시는 해당 과제를 보완하여 실제로 법령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병원동행서비스' 2000여명 이용

서울시는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가 190일 만에 2000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아플 때 혼자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함께하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로, 작년 11월 첫선을 보였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저소득 시민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

Weather forecast for Seoul and surrounding areas, including temperature (16-28°C) and a map showing weather conditions in various cities like Incheon, Gyeonggi, and Gangwon.



▲美상원,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결의안 발의 /사진 뉴스시스 ▲日조선인 마을 방화범 "재일 한국인에 공포 주려고...후회 없어"

▲美 '어머니날'에 자녀 3명 살해한 엄마...아들과 함께 체포 ▲"日, 6월부터 단체 관광객 수용·일일 입국자 2만명 상향 검토"



▲中 장기간 봉쇄에 글로벌 기업들 '울상'...엑소더스 서두르나 /사진 뉴스시스 ▲'위안부 10억엔' 윤미향·외교부 면담...2심도 '일부 공개해야'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